

바세나르 협정, 일반무기류 수출에 관한 규제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지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 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편집자 주|

Q “바세나르협정”이라는 낯선 단어를 들곤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A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이적행위를 금지하는 COCOM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COCOM이 끝나도 지역분쟁이 오히려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여 1994년 4월부터 1996년 7월까지 잠정규제기간을 두어 시행하다가 1996년 7월 바세나르협정(WA; Wassenaar Arrangement)이 정식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무기 및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일반 무기류의 과도한 축적이나 불법수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의 안전보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반무기 및 그 개발·제조·사용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이중용도물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유럽·동구권국가·러시아 등을 포함한 33개국이 창립멤버로 참여하였으며 명칭은 회의가 개최된 네덜란드 바세나르시(市)의 지명에서 따온 것입니다.

Q 러시아까지 참가한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규제한다는 것입니까?

A COCOM 참가국은 소위 서방진영의 국가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세나르협정(WA)에서는 서방국가들뿐 아니라 러시아, 동유럽국가, 아르헨티나 등도 참가한 개방형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대상 지역은 특정 국가(군)가 아니라 분쟁지역 등입니다. 따라서 참가국에 의한 전 지역규제가 되는 셈입니다.

Q COCOM 때는 “이 물품은 바르샤바로 보낼 거니까 허가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흔히 들었는데 WA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COCOM은 파리에 본부가 있으며 참가국 모두의 합의 하에 수출이 허가되는 소위 “컨센서스 방식”이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WA에서는 수출에 대한 허가 및 불허가의 판단은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참가국간의 협조는 정보교환 및 정책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A의 사무국은 파리가 아닌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습니다. 바세나르협정(WA)은 수출통제품목을 (1)무기, (2)기본리스트(Basic List), 초민감리스트(Very Sensitive List)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회원국간에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실적(거부실적 포함)을 상호 통보하여 정책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Q 무기이전에 대해서는 “유엔의 등록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WA에서도 이전통보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군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써 “일반무기 국제이전의 유엔등록제도”가 1991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되어 1992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바세나르협정(WA)에서는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 정보교환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물자 무역관리에 대한 상담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STIC)

• 전화 : (02)6000-5252~3 • 인터넷 : <http://stic.kita.net>